

# 순천, 남해안 스마트허브도시로 ‘도약’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선정…국비 80억 확보  
노관규 시장 “시민 체감…교통·안전·환경 서비스 강화”

순천시가 남해안 스마트허브도시로 기후위기 대응의 구심점으로 도약한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전남 동부권 최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3년간 국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시가 지속 추진해 온 남해안권 생태 경제 전략이 국가적 공감을 얻은 결과로, 순천이

남해안권 스마트 허브 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지역 소멸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특성에 맞는 핵심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가 선정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형으로, 3년

간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80억원, 시비 80억원)을 투입해 시민체감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대자보 서비스, AI 스마트 생태·안전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자전거 이용, 재활용 등 시민의 친환경 행동을 데이터화해 통합 리워드로 환산하는 탄소 감축 리워드 서비스와 이동형 캐리밴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테스트베드 등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개선 의견을 사업에 반영 할 계획이다.

또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한 고정밀 버스정보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를 파악하고 오차 범위를 줄여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

이다.

시는 이번 기후위기 분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순천의 블루·그린인프라와 스마트 기술 융합으로 남해안권 생태경제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도 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환경 서비스를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 혁신을 선도하는 남해안권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리뉴얼 마스코트 명칭 변경

## ‘장군이·오동이’ 최종 심의 확정

여수시는 시 리뉴얼 마스코트의 공식 명칭을 ‘장군이·오동이’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명칭 선정은 기존 마스코트 ‘구나·구나’를 시대 변화에 맞춰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에 적합한 명칭을 붙이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마스코트 네이밍 공모를 진행해 총 1024건의 공모작을 접수했다. 이후 부서·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시민·직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명칭을 확정했다.

새로운 명칭은 투구를 착용한 캐릭터가 여수를 상징하는 ‘이순신 장군’, 동백꽃을 장식한 캐릭터가 ‘오동도’를 연상시키게 하는 점 등 지역 상징 요소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여수시는 12월 중 장군이·오동이 키카오록 이모티콘 배포, 시청 잔디밭 공기 조형물 설치 등 홍보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2026여수세계박람회 등 다양한 시정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새로운 마스코트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앞으로 공개될 굿즈·이모티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보성군이 30년 만에 ‘인구 순전입’ 전환을 이루며 주요 인구 지표 전반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어린이날 행사에서 지역 아동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모습.

## 보성, 30년 만에 ‘인구 순전입’ 전환 달성

출생 지표 개선·3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승  
정주환경 개선…청년·출산정책 확대 주효

보성군이 30년 만에 ‘인구 순전입’ 전환을 이루며 주요 인구 지표 전반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 등록 기준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보다 90여명 많은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이는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전출입 통계를 보면 2023년 127명, 2024년 88명으로 감소 폭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출생 지표도 동시에 개선됐다.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에서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고, 2025년에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0% 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0.79에서 2023년 1.09, 2024년 1.20으로 3년 연속 상승하며 전국 17위, 전남 8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율은 2023년 2%대에서 2024년 1.7%로 개선됐고, 2025년에는 1% 초반대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변화는 2023년 인구정책과 신설, 2025년 청년활리팀 설치 등 조치를 확대하며 청년 정책,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해온 점이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다고 군은 분석했다.

또 출산장려금·양육지원 확대(2023), 출생기

본수당 신설(2025),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출산 축하 물품 지급 등 지원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군은 청년층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창업 프로젝트, 가업승계 지원 등 경제활동 통로를 넓히며

지역 청년 활동의 실질적인 확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방향도 ‘서남 중심 투자형 전략’으로 전환해 소프트웨어(SW)

) 기반 인구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인재 발굴 플랫폼 ‘보성 두드림 스테이’, 스타

트업 육성 공간 ‘보성새싹 키움’, 빙집 활용 주거 품앗품 ‘보성 마을 집사’ 등 관광·문화·청년 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 힘을 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인정받아 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30년 만의 사회적 인구 증가세는 보성이 인구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꾸준히 확장해 ‘미루고 돌아오는 보성’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 장흥 ‘아동친화도시 크리스마스 연말 기획전’ 운영

아동·가족 함께 만드는 체험형 아동친화공간 조성



장흥군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장흥군청 의회동 1층 로비에서 ‘아동친화도시 크리스마스 연말 달辱한 특별기획전’ 운영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군 아동 및 가족, 일반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아동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전시 공간에는 크리스마스 및 겨울분위기를 살린 LED조명과 소규모 테마 정원, 아동과 부모가 함께 만드는 소망카드 전시존, 포토존을 조성될 예정이다.

또 군은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아이들이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 곡성 지역소멸대응기금 평가 A등급 확보

체류형 생활인구 활성화·청년상권 조성 등 추진

있도록 마련한 아동친화공간이다”며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자유롭게 참여하고 주의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곡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인센티브 8억을 포함한 8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군은 ‘섬진강 곡성 살아보기-정착하기-정주하기’ 3단계 전략에 맞춰 체류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종점사업인 스테이 앤 플레이 곡성 생활거점 조성사업, 청년 정착 강화를 위한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 곡성읍 청년상권 조성 등 총 5개 사업을 제출했다.

종점사업인 곡성 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연간 약 14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 내 유스호스텔을 중규모 이상의 속박공간인 ‘(가칭) 섬진강스테이’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곡성의 체류 인구는 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5.19배 높은 수준이지만 그동안 열악한 속박 인프라와 상권 저하로 단기 방문객에 그치고 있어, ‘섬진강스테이’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활성화해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대할 목적이다.

이에 더해 로컬관광 상품개발, 로컬메이커스 양

성, 지역화폐와 연계한 곡성로컬페스 앱 개발 등 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종을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연간 500여명의 기업 청년들이 찾고

있는 섬진강온마을 워케이션의 장기 체류형 모델 창출을 위한 기업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능촌유학마을과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부모 일자리 지원, 지역특화비자 외국인 정착을 위한 프로

그램 지원 등 정주형 인구 유입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은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초기 설계했던 투자 사업들이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능촌 유학, 청년 농업인, 귀촌인 등 인구 유입 성과를 보이고 있다”

며 “내년에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발굴과 일자리 발굴로 ‘인구유입·정착·정주’로 완성되는 지역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광양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역  
공사 지연 등 이유…내년 3월 예정

광양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가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정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개원 시기를 내년 3월로 변경하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시 홈페이지, MY광양 앱, SNS 등을 통해 개원 예정일 변경을 안내하고 있으며, 등록 임산부에게는 문자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은 2026년 3월 출산 예정 산모부터 가능하며, 2026년 1월 12일부터 미래여성의원(070-4292-8223~4)에 전화해 상담·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또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시스템(전남아이톡)’과 연계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061-797-406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출산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예정 일정이 조정되면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전관리, 감염관리, 모유수유 프로그램, 신생아 케어 등 전문 서비스를 갖춘 전국 수준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일부 공정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이 늦춰진 상황이다. 시는 준공 후 필요한 장비 설치와 감염관리 점검, 내부 시운전 등을 거쳐 2026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